

목포해수청,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

- 여객선 운항횟수 212여회 증회, 14만3천명 이용 예상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1월 24일(금)부터 2월 2일(일)까지 10일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을 추진한다.

목포해수청은 대책기간 동안 증선·증회를 통해 평소보다 212여 회가 증가된 2,441회를 운항하여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.

귀성객이 몰리는 완도-청산 및 당목-서성 항로는 여객선 1척이 각각 추가 투입되고, 남강-가산, 화홍포-소안 등 총 8개 항로는 운항횟수가 늘어난다.

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이용객은 최근 5년 평균보다 2% 증가한 14만 3천명으로 전망되며, 특히 1월 28일(화), 29일(수)에는 일 2만9백여 명이 몰리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목포해수청은 설 연휴에 앞서 여객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, 대책기간 중에는 특별교통 대책반을 운영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설 연휴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며 “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, 출항 10분 전에는 승선을 완료하는 등 여객선 승하선 혼잡에 대비를 당부 드린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사무관	김철경 (061-280-1640)
		담당자	주무관	김일선 (061-280-1642)